

# 일본의 지역 청소년에게 이바쇼(居場所)가 갖는 의미

- 유스센터즈 오노미치(ユースセンターズオノミチ)를 사례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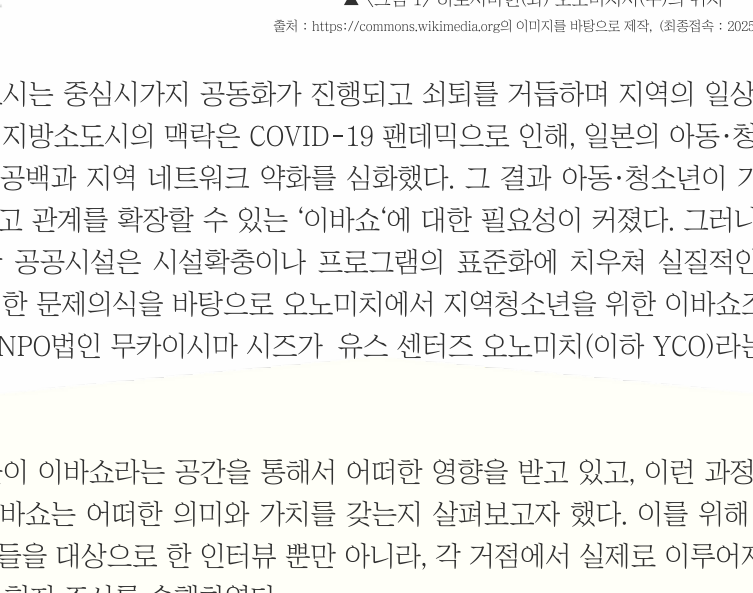
25학번 김승민, 곽♡수, 박☆☆

## ▶ 이바쇼(居場所)란?

편안한 마음이 들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이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행위나 활동, 온라인 공간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바쇼즈쿠리(居場所づくり):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바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바쇼에 대한 선택지를 늘려주는 활동.

## ▶ 들어가며



▲〈그림 1〉히로시마현(현) 오노미치시(市)의 위치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Onomichi.jpg> (최종접속 : 2025.10.11)

일본 지방소도시는 중심시가지 공동화가 진행되고 쇠퇴를 거듭하며 지역의 일상적 유대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지방소도시의 맥락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본의 아동·청소년의 학교·가정 사이에서 돌봄의 공백과 지역 네트워크 약화를 심화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외부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이바쇼'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기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은 시설확충이나 프로그램의 표준화에 치우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노미치에서 지역청소년을 위한 이바쇼즈쿠리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NPO법인 무카이시마 시즈가 유스센터즈 오노미치(이하 YCO)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지역 청소년들이 이바쇼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지역 청소년에게 이바쇼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NPO 관계자와 다양한 거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뿐만 아니라, 각 거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며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 ▶ 분산형 거점 모델을 통한 이바쇼즈쿠리

YCO는 오노미치시에서 진행되는 '지역 분산' 형태의 사업으로, 지역 상점가의 카페, 갤러리, 게스트 하우스 등 여러 민간 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이는 도시 외곽의 교통이 불편한 오노미치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대형 시설 하나를 역 앞에 두기보다는, 여러 장소에 거점을 분산시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거점 운영자들이 생각하는 이바쇼란?

###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공간

-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곳
-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부담이 없고, 가볍게 들릴 수 있는 곳
- 편안한 마음이 들고, 다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

###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부정당하지 않는 곳
- 학교에서는 힘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곳
- 좋아하는 것에 대해 조언해줄 어른이 있는 곳

###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 일과 놀이, 대화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섞이는 곳
- 오는 사람들끼리 친해줄 수 있는 곳
-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며 백이 무너지는 경험이 가능한 곳

###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

- 지역으로 무대를 확장시켜주는 곳
-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곳
- 지역사회를 선순환시키는 구심점인 곳

"어린과 달리 아이들은 이바쇼라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이바쇼라는 더욱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의 제공만으로 이바쇼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먼저 이러한 공간은 어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합니다.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바쇼에서는 일과 놀이, 대화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카운터같은 공간입니다. 학교나 가정과 맞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며 지역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의지처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NPO 사무국 이사, 텍스트 씨-



▲〈그림 2〉YCO에서 추구하는 청소년과의 관계 출처 : <https://www.onomichi.com/01/01/01/01/01/01/> (최종접속 : 2025.09.07)

또한, YCO는 이러한 공간성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이바쇼즈쿠리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관계는 부모·교사와 같은 수직적 관계나 친구 같은 수평적 관계가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한 사선의 관계였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프로그램·규칙 등 공간을 함께 설계하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성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신뢰로 전환되고, 신뢰는 공간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이바쇼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 ▼〈그림 3〉오노미치시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YCO의 거점들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

출처 : 유스센터즈 오노미치 홈페이지, <https://m.ukaishimaseeds.com/>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 (최종접속 : 2025.09.07)

##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먼저 YCO의 거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들을 마련하여 지역청소년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꾸미거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으면, 다양한 색깔의 이바쇼가 있어 아 한다고 생각해요. 유스센터즈 오노미치는 다양한 거점이 있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카페 니와토코 관계자, 안코 씨-

YCO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거점들을 마련해 청소년의 선택지를 넓혀주었다. 말하는 도서관 혼네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대화, 스푼에서는 예술 작품 제작 및 전시, 기타 니와토코에서는 상담과 티타임이 갖는 등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다양한 거점들에 직접 가보는 경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오노미치 곳곳에 분산된 여러 거점들은 단순히 지역의 생활권에 여러 이바쇼를 위치시키는 이점을 쫓 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년이 자신의 기호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바쇼란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으며, 뭘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곳.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도서관 혼네 관계자, 세리 씨-

게다가 혼네에서는 책을 매개로 한 대화뿐만 아니라, 독서·휴식·잡담·음악 감상 등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꼭 무언가를 해야한다거나 열심히 해야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처럼 YCO의 거점들은 청소년이 특정한 규칙이나 프로그램에 얽매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나'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은 청소년 스스로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다양한 거점들에 직접 가보는 경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니와토코, 혼네, 기타우이 등과 같은 이바쇼들에서 '인생상담'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점운영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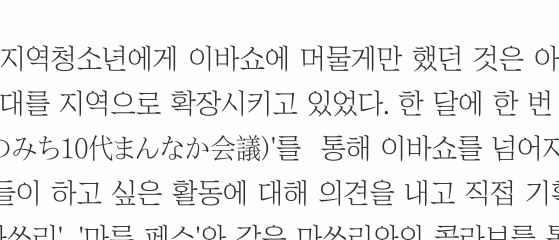
##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

YCO의 이바쇼는 청소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 극복과 더불어 지역사회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열어준다.

"땀이 들고 거부를 하게 되며, 이바쇼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이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했어요. 요즘은 땀이 갤러리에서 무언가 만들어 줄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조금씩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spoon 관계자, 하루카 씨-

실제로, 등과 거부 상태였던 한 거점 운영자의 자녀가 이바쇼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시도해보며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다양한 거점들과 사람들과 만나 기회를 제공하며 좋아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 1〉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소년과 지지해주는 어른들 (2025.07.28 촬영함)

또한, 소셜 키친 오노미치(Social Kitchen Onomichi)에서 만난 청소년 류세이 씨는 평소 관심을 두던 비즈니스에 대해 거점 운영자와 대화를 나누며,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이를 실제 활동으로 시도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오노미치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이를 지지해 주는 어른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구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이 이바쇼에서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며 사람들과 연결되고 지역사회로 나아가 발판을 마련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바쇼라는 공간에서 지역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 연결되고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며, 일회성인 만남을 넘어 지역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YCO의 각 거점은 자신에게 맞는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타 니와토코에서는 기존 거점 간 연결을 통해 청소년의 관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히로 씨 가게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추천해줄 수 있어요."

-카페 니와토코 운영자, 안코 씨-

이처럼 거점 운영자는 청소년을 또 다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하며, 청소년의 인간관계망이 거점 간 연결을 통해 넓어지도록 돕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공간 안에서 머무르는 관계를 넘어, 새로운 이바쇼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접점이 또 다른 자아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바쇼에서는 일과 놀이, 대화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카운터같은 공간입니다."

-소셜 키친 오노미치 운영자, 히로 씨-

소셜 키친 오노미치에서 채류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로는 외국인이나,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 야구시비를 구경시키며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함께 요리도 배우고 이루어지거나 자습실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복합교류공간이었다.



▲〈사진 2〉Hello! 방문 후 기원 운영자 및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자들과 대화 중 기념사진 (2025.07.30 촬영함)

"이곳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오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생기는 장소예요."

-공용 스피어씨 Hello! 운영자 하루오 씨-

또한 Hello!는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자습을 하는 학생, 대화를 나누는 주민, 거점 운영자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만, 나에게 맞는 편안한 공간 덕분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발생한다. 청소년은 그 속에서 자신과 대화에 맞는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안도감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이바쇼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바쇼가 청소년에게만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때론 YCO의 거점들은 지역 주민, 여행자, 예술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기능한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또래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눔. 청소년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과 잘 맞는 대화 상대를 찾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게 돕는다. 이처럼 이바쇼에서의 청소년 개인의 경험들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며 사람들이 모여 공통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



▲〈사진 3〉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지역청소년들의 모습 출처 : YCO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011146734/> (최종접속 : 2025.07.28)



▲〈사진 4〉직접 기획한 지역 축제를 진행하는 지역청소년들의 모습 출처 : YCO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011146734/> (최종접속 : 2025.07.28)

YCO의 이바쇼즈쿠리는 지역청소년에게 이바쇼에 머물러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바쇼는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청소년들의 무대를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오노미치 10대 만나기 회의(おののみち10代まんなか会議)'를 통해 이바쇼를 넘어 지역 내에서 그림 전시, 음악 라이브, 카페 운영 등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내고 직접 기획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중, '우리로 마스리', '마루 페스'와 같은 마스리와의 콜라보를 통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축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기억에 남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YCO의 '오노미치 10대 만나기 회의'를 통해 이바쇼를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바쇼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은 이바쇼뿐만 아니라 기관관, 지역 주민, NPO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관계망을 넓히고, 지역 주민과의 연계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역 행사, 봉사활동 등으로 이어지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우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 다양한 사람과 엮이며 타인을 포용하는 '타자수용'을 배우게 된다. 또한 하고싶은 일을 실현시키도록 지지해주며 지역청소년들에게 불만보다 기대가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돕는다. 이처럼 이바쇼에서의 청소년 개인의 경험들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며 사람들이 모여 공통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청소년을 위한 이바쇼즈쿠리의 지향점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바쇼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다양한 사람들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다고 느꼈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앞으로 지역 청소년의 '이바쇼' 부재 문제를 완화하고, 청소년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치며

YCO의 이바쇼즈쿠리는 단순히 지역청소년에게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시도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엮이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YCO의 이바쇼는 지역청소년에게 다양한 공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역청소년들은 자신의 관계를 통해 이바쇼라는 공간에 안심하고 있을 수 있었고,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역청소년들은 나와 맞는 공간을 찾아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으며, 학교와는 다르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부정당하지 않고 시도해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거점 운영자, 지역 사람들, 또래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엮이며 나와 다른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바쇼가 매개가 되어 지역청소년과 지역이 엮이며 이바쇼는 지역사회를 선순환시키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청소년을 위한 이바쇼즈쿠리의 지향점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바쇼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다양한 사람들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다고 느꼈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앞으로 지역 청소년의 '이바쇼' 부재 문제를 완화하고, 청소년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